

러시아어의 “물주형용사”구문: 기능변환소론의 사례 연구*

최 성 호**

1. 들어가기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러시아어 명사구에 나타나는 мамин, Машина, Петино 등의 소위 “물주형용사(притяжательное прилагательное, 앞으로는 PA(Possessive Adjective)로 지칭¹⁾)”를 논의의 대상으로 한다.

- (1) a. мамин портрет ‘엄마의 초상화’
- b. Машина статья ‘마샤의 논문’
- c. бабушкины друзья ‘할머니의 친구들’
- d. Петино письмо ‘페차의 편지’
- e. новости про мамину школу ‘엄마학교 소식’

전통문법은 이들 PA의 품사를, 그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형용사로 간주해 왔는데, 그 근거는 이들 PA가 형태-통사적으로 일반 형용사와 같은 행태를 보이기 때문이었다(Шведова и др. 1970, Townsend 1968/1975 등 참고). 즉, 위 예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들은 통사적으로 명사에 선행하면서, 이 명사와 성, 수, 격에 있어 일치(согласование)하는 어미와 통합되어 있고, 기능적으로 핵어-명사(head-noun)의 ‘수식어(modifier)’적인 기능을 보이기 때문이다(일반 형용사가 수식어로 기능하는 명사구 противные друзья와 같은 예를

* 이 논문은 2006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충북대학교 노어노문학과 교수.

1) 본고의 논의 대상인 мамин과 같은 형태를 본 논문에서는 PA로 지칭하는데 이것은 관례적이다. 본론에서 논의되겠지만, 필자는 “PA”를 형용사로 보지 않고, 명사로 본다(3장 참고).

참고). 따라서 이들 PA는 명사에 파생접사가 어휘적으로 통합된 형용사로 간주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Chvany 1977, Corbett 1986, Колпеческая-Тамм и Шмелев 1994, Babyonyshev 1997, Rappaport 2000 등)에서는 이들의 품사를 형용사로 보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특성들(2장 참고)에 대한 보고가 있었는데, 그 특성들 중 가장 중요한 사실은 PA가 지시적(referential)이어서, 아나포라의 통제자(controller) 역할로 기능할 수 있다(2.1.3 예 (6) 참고)는 점이다. 이것은 비지시적이며, 아나포라 통제가 불가능한 일반 형용사와 뚜렷하게 대비되는 점인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최근의 연구자들은(특히, Babyonyshev 1997, Rappaport 2000 등) PA를 기저적으로 명사가 통사적 프로세스에 의해 ‘형용사화’ 또는 ‘한정사화’된 형식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통사적 일치와 수식이라는 형용사적 특성과 지시와 통제라는 명사적 특성을 아울러 가지는 PA의 품사지위에 대해서 본고는 PA가 명사라는 견해에 동의는 하지만, 그 형태-통사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기존의 연구들과 의견을 달리 한다. 특히, PA의 구성성분인 접사 -ин의 성격에 대해 본고는 러시아어 명사가 자신에 전형적인 통사기능인 논항어(argument)로 사용되지 않고, 한정어(determiner)로 사용되면서 통사적으로 통합된 ‘기능변환소(function adapter, FA)’임을 주장한다(3장 참고).

본고에서 제안되는 러시아어 -ин의 ‘기능변환소’론은 통사범주(품사)와 통사기능 사이에는 전형적 관계가 존재한다는 경험적 관찰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제3장에서 자세하게 논의되겠지만, 자연언어의 품사와 통사적 기능 사이에는 전형적 대응 관계를 보이는바, 예컨대, 명사는 전형적으로 논항어의 통사기능을 가지며, 동사는 서술어로, 형용사는 수식어로 기능한다. 이러한 전형적 관계에서 이탈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러한 범주와 기능사이의 유표적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기능변환소’이며, -ин은 그러한 기능변환소의 일종이라는 것이 본고의 핵심적 주장이다.

2. PA: 특성과 기존의 견해

본 장에서는 PA가 보이는 다양한 형태-통사적 특성과 형성(形成)상의 제약에 대해서 먼저 논의한 뒤, 기존의 연구들의 견해 및 분석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2.1. PA

2.1.1. (기저)명사의 어휘적 특성. 러시아어의 PA를 형성하는 접사로 *ин*과 *ов*가 있는데, 이 둘은 서로 상보적 분포를 보인다. 전자는 제2곡용패턴이라는 형태론적 어휘특성을 가지는 (기저)명사에 한정되어 분포하는 반면, 후자는 제1곡용패턴을 가지는 명사에 한정되어 분포한다(*мама > мамин, Саша > Сашин, бабушка > бабушкин* 등 vs. *отец > отцов, брат > братов* 등).²⁾ 그러나 후자의 접사는, (1) 현대러시아어에서 비생산적이 되어가고 있으며, (2) 많은 경우 이미 굳어진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고의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1)은 이전에 *ов*가 통합된 형태가 *ин*이 통합된 형태로 대체되거나(*Андреев ~ Андреин, братов ~ братнин* 등), 동일한 조건에서 *ов*접사화 형태는 어색하나 *ин*접사화 형태는 무난하다는 사실(*актрисина/*актерова квартира, кошкина/*котова миска* 등)을 들 수 있겠고, (2)는 *адамово яблоко* ‘목젓’, *аннибалова клятва* ‘한니발의 맹서’ 등에서 그 예를 찾을 수 있다(*Копческая-Тамм и Шмелев 1994, 216-; Babyonyshev 1997, 198*).

*ин*은 제2곡용패턴을 가지는 명사 중 고유명사(예: 1b, 1d), 친족명사(예: 1a, 1c, 1e), 직업/직함명사(예: *актрисина квартира* ‘여배우의 방’) 등의 어휘부류에 한정되는데, 이들 어휘부류의 의미적 공통성은 모두 인물을 지칭하는데 사용되는 명사라는 데에 있다.³⁾

한편, 고유명사의 경우, 이름 및 애칭 명사 뿐 아니라, 이름-부칭(*имя-отчество*)의 복합명사(*Марья Ивановна > Марьи Ивановнин дом*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집’), 친족-이름의 복합명사도 PA를 형성한다(예: *тетя Маша > тети Машины дети* ‘마

2) 한편, 전통적으로 접사 *-(и)я*가 통합된 형태(*собачий, медвежий* 등)도 “물주형용사”로 취급하고 있으나(*Шведова и др. 1970, 177; Townsend 1968/1975, 226*), 이는 형태론적 고려에 의한 것이며(이들은 소위 “혼합변화”를 한다; 2.1.2. 참고), PA와의 의미-화용적 공통성은 존재하지 않는다(2.1.3. 참고).

3) 동물명사가 의인화된 경우에는 사용가능하지만(예: *кошкина миска* ‘고양이의 국그릇’), 일반적 경우에는 불가능하다(*собака > *собакин/*собачин, рыба > *рыбин*, 등). *девушка, соседка* 등의 ‘사회적 관계’를 나타내는 인물지칭 명사들은 넓은 의미의 직업/직함명사로 분류될 수 있다.

사 아줌마의 애들'). 그러나 '이름-성'의 복합명사는 PA의 기저명사로 활용되지 않는다.⁴⁾

PA가 제2곡용패턴 명사에 한정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인물명사를 지칭하며, 특히 고유명사의 경우 이름, 애칭, 이름-부칭의 복합명사에 국한되어 형성된다는 사실은 PA의 형성이 어휘적 요인(제2곡용패턴명사와 인물지칭명사)에만 한정되어 있지 않음을 암시한다. 본고는 기술적(descriptive) 용법보다 지시적(referential) 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명사가 PA 형성가능성 역시 높다는 점을 지적한다.⁵⁾ 기실, 친족명사, 고유명사, 직업/직함명사 등은 기술적 내용이 최소화되어 있으며, 따라서 순수 지시적인 용법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러한 명사들이 호칭으로 사용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다(мама, бабушка, Маша, Наташа, девочка 등의 명사가 호칭으로 사용됨을 고려). 이 점에 대해서는 2.1.3의 의미-화용적 특성에 대한 논의에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2.1.2. 형태적 특성. PA는 핵어-명사와의 일치를 보이는데, 이때 일치의 형태적 실현은 “혼합변화패턴”을 따른다.

(2) PA мамин- (мамин-)의 곡용

| | 단수 | | | 복수 |
|----|------|------|-----|-------|
| | 남성 | 중성 | 여성 | |
| 주격 | -∅ | -o | -a | -i |
| 대격 | =주~생 | =주 | -u | =주~생 |
| 생격 | -ovo | -ovo | -oj | -ix |
| 처격 | -om | -om | -oj | =생 |
| 여격 | -omu | -omu | -oj | -im |
| 조격 | -im | -im | -oj | -im'i |

즉, 주격 및 대격에서는 명사의 곡용패턴을 따르는 반면, 사격에서는 형용

4) 고유명사의 경우, 호칭으로 사용되는지의 여부가 PA로의 활용가능성에 하나의 요인으로 기능하는 듯하다(Копчешская-Тамм и Шмелев 1994, 226).

5) 필자는 PA의 형성가능 명사가 어휘적 특성이나 자의적 명세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화용적 상황에서의 적절성 여부와 화자의 개체 인식태도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며, 따라서 PA 형성가능한 명사부류는 근본적으로 열려있다고 본다(2.1.3. 참고).

사의 곡용패턴을 취한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소위 “소유대명사”라고 지칭되어 온 단어들(мой, твой, наш, ваш, свой)은 인칭대명사(я, ты, мы, вы, себя)의 “형용사형”이라고 할 만한데, 이들 역시 이러한 혼합변화의 곡용패턴을 취한다는 점이다.⁶⁾ 전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A 형성 가능성이 높은 명사는 높은 지시성이 담보되는 명사라고 하였는데, 인칭대명사 역시 그러한 명사부류의 대표적 요소들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발화사건의 참여자인 화자와 청자를 지시하는 1인칭, 2인칭 대명사 및 비-참여자 지시하는 3인칭대명사, 그리고 재귀대명사는 모두 기술적 내용이 결핍되고 오로지 지시적으로만 사용되는 표현들이다. 이러한 인칭대명사가 “소유대명사화”하여 한정어로⁷⁾ 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왜냐하면 한정어란 핵어-명사가 지칭하는 지시체의 한정성(definiteness)⁸⁾을 표현하는 구성성분이기 때문이다.

“소유대명사”가 높은 지시성의 인칭대명사가 한정어로 기능할 때 나타나는 형태라는 사실, 그리고 형태론적으로 혼합변화의 곡용패턴을 보인다는 사실은, PA가 높은 지시성의 명사들(고유명사, 친족명사, 직업/직함명사)로부터 형성되며, 아울러 혼합변화의 곡용패턴을 보인다는 사실과 평행적이다.

2.1.3. 의미-화용적 특성. 2.1.2.절의 논의는 PA의 화용적 특성과 그대로 연결된다. Копчская-Тамм и Шмелев(1994, 217)에서 지적되었듯이, PA는 기저명사가 지시하는 지시체의 정체성(identity)을 전제한다.⁹⁾ 다음의 이야기는 화자(서술자)인 Илюша가 자신의 할머니에 관해 서술하는 내용이고, 따라서 할머니가 누구의 할머니인지 화자(즉, 이야기서술자)와 청자(즉, 독자)에게 이미

6) 아울러, “(직시적) 지시대명사”로 지칭되어온 단어들(этот, тот), 그리고 비-기술적(non-descriptive)이며 순수 지시적인 ‘대명사’ сам, весь, один 등의 단어들 역시 “혼합변화”한다.

7) 본고는 мой 등의 “소유대명사”를 я 등의 인칭대명사가 한정사(determiner)의 통사기능(즉, 한정어)을 수행할 때 나타나는 형태로 가정한다(3.2 참고).

8) 본고에서 지시체의 ‘한정성’은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핵어-명사가 지칭하는 지시체의 정체성이 인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assumed familiarity”; 이정민 1992, 397-8: “화자와 청자사이의 공통된 장을 위해 화역 속에 들어 놓은 것으로 전제된 대상의 표현이 한정적이다”).

9) Копчская-Тамм и Шмелев(1994, 217) “Использование possessива предполагает определенность референта.”

알려져 있다. 이러한 화용-담화 상황은 бабушкины라는 PA의 사용을 동기화한다.

(3) Илюша подумал, что они шутят. Но приходили еще бабушкины друзья и тоже весело шутили. Они называли друг друга "лейтенант", "капитан".

‘일류샤는 그들이 농담하는 걸로 생각했다. 그렇지만, 나중에 온 할머니의 친구들 역시 즐겁게 농담을 해 댔다. 그들은 서로서로를 “중위”, “대위” 등으로 불렀다.’

이러한 PA의 기저명사의 지시적 한정성은 다음 문장 쌍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료하게 증명된다(Babyonyshev 1997, 200에서 재인용).

(4) a. Ваня хочет жениться на актрисинной дочке.

‘바냐는 그 여배우의 딸과 결혼하고 싶어한다.’

b. Ваня хочет жениться на дочке актрисы.

‘바냐는 여배우 딸과 결혼하고 싶어한다.’

PA가 출현한 (4a)에서 기저명사 актриса는 화/청자 모두에게 그 정체성이 확인된 개체를 지시하는 반면, (4b)에서 명사구내 생격명사로 출현한 актриса는 이러한 화용적 해석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생격명사는 정체성이 확인된 한정지시체를 지시하기도 하지만, 총칭적(generic) 표현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PA의 기저명사가 보이는 지시적 한정성이라는 특성은 동일한 기저명사로 부터 어휘적으로 파생된 형용사의 경우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 역시 언급될 만하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문장 쌍에 나타나는 PA와 일반 형용사의 의미는 분명히 차별화된다.

(5) a. Дедова солдатская койка стояла в углу за платяным шкафом.

‘할아버지의 병영침대가 옷장 뒤 구석에 있었다.’

b. Какой-то молодец купил огромный дом. Дом, правда, дедовский, но строенный на славу.

‘어떤 젊은이가 큰 집을 구입했는데, 그 집은 낡기는 했지만, 아주 튼튼한 집이었어.’

(5a)의 РА Дедова에서 기저명사 деда‘할아버지’가 특정 지시체를 지시하여, 그 인물의 정체성이 화자와 청자 모두에게 확인되는 데 반하여, (5b)의 일반형용사 дедовский의 기저명사에 이러한 한정성 의미가 나타나지 않는다. 기실, 후자는 ‘할아버지적, 낡은’ 정도의 의미를 가진 성질 또는 상태를 표현하는 성질형용사이다. 성질형용사가 아닌 РА에 정도(degree)의 비교급, 최상급 형태가 존재하지 않음은 당연하다.

‘한정성’ 특성으로 인해 РА의 기저명사는 대용사의 통제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6) a. Я принесла Надину книгу. Она просила ее сегодня вернуть.
 ‘내가 나자의 책을 가져왔다. 그녀는 나에게 책을 오늘 돌려달라고 말했다.’
 b. ... что-нибудь о Гришиных делах: из киностудии ему ответили?
 ‘그리샤의 일에 관해 무엇인가를... (그런데) 스튜디오에서 개한테 답변을 주었니?’

(6)의 두 예문에서 후행하는 대용사인 3인칭대명사 Она와 ему가 지시하는 인물은 РА의 기저명사가 지시하는 Надя와 Гриша이다. 즉, 이들 기저명사가 3인칭대명사의 성(gender)과 수(number)에서의 일치를 통제한다(Chvany 1977, Corbett 1986 등).

한편, 지시적인 용법으로 사용되기 어려운 명사, 예컨대 особа와 같은 명사들은 РА를 형성하지 못한다. 이것은 РА가 한정어로 기능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기저명사의 한정성이라는 필요조건을 어휘적 의미 특성(‘화자가 모르는 어떤 분’)이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Копчешкая-Тамм и Шмелев 1994, 218).

그러나 РА의 기저명사 한정성 조건은 필요조건일 뿐 충분조건은 아니다. 예컨대 мужчина, женщина, судья, староста 등의 명사는 제2곡용 인물명사이며, 실제 담화-화용 맥락에서 한정적 지시체를 지칭하는 문장 성분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이들 명사는 РА를 형성하지 못한다. Копчешкая-Тамм и Шмелев (1994, 218)에 의하면, (Апресьян의 견해를 인용하면서) РА를 형성하는 기저명사가 지칭하는 인물이 “화자의 사적 영역(личная сфера говорящего)”안에 있어야 한다는 화용적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부연하면, РА 형성가능성은 기저명사가 화자에게 ‘친밀한(фамильярность)’ 인물을 지칭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높다는 것이다. 어떤 인물을 мужчина, женщина 등의 총칭명사

로 지칭한다는 것은 그 인물이 화자에게 친밀하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며,¹⁰⁾ 따라서 이러한 명사에서 상응하는 PA *мужчинин, *женщинин 등이 형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설명된다.

요컨대, PA는 지시적 한정성 및 친밀성이라는 담화-화용적 특성을 가지는 명사에서 형성된다는 제약이 있다.

2.1.4. 통사적 특성. 2.1.3에서 논의한 PA의 기저명사의 담화-화용적 특성은 PA를 포함하는 전체 명사구에서 PA가 한정어의 통사적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다시 말하면 PA는 PA-외적으로 (전체 명사구에서) 후행하는 명사를 지시적으로 한정하는 통사적 역할을 담당한다. (1)의 예(재인용)에서, PA мамин, Машина는 후행하는 명사 портрет, статья의 잠재적 지시체 중에서 특정 지시체를 한정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 (1) a. мамин портрет '엄마의 초상화'
 b. Машина статья '마사의 논문'

한편, PA-내적으로 기저명사는 자체적으로 구(phrase)를 형성한다. 이러한 사실 역시 기저명사의 지시적 한정성이라는 담화-화용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예컨대 мама, Маша 등의 명사가 자체적으로 '벗은 명사구(bare NP)'로 투사될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사실은 통사적으로 수식어나 한정어가 통합된 명사구는 PA의 기저명사(구)로 사용될 수 없다는 점이다(Babyonyshev 1997, 209에서 재인용).

- (7) a. *моя/*моей мамин портрет
 '내 엄마의 사진'
 b. *больная/*больной старухин портрет
 '병든 할머니의 사진'

10) 어떤 인물의 이름을 아는 것은 친밀성의 척도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이름명사 또는 '이름-부칭'의 복합명사로 지칭하는 것이 성 명사 또는 '이름-성' 복합명사로 지칭하는 것보다 친밀도가 높다는 사실이 후자의 PA 형성상의 어려움을 설명한다. 그러나 '이름-성'의 복합명사가, 어떤 인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칭으로 사용되고, 따라서 친밀성을 획득하게 되면, 역시 PA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Babyonyshev 1997, 211, 각주 14).

(7a)의 PA는 핵어 *мама*가 *моя*(주격) 또는 *моей*(생격)의 한정어와 통합된 명사구로부터 형성된 것이며, (7b)의 PA는 수식어인 *больная*가 핵어인 *старуха*에 통합된 명사구로부터 형성된 것인데, 모두 비문법적인 통합체이다.¹¹⁾ 그러나, 동격(apposition)명사구나 ‘이름-부칭’의 복합명사구는 PA의 구성성분이 될 수 있다.

- (8) a. *тети Катина книга*
 ‘숙모 카차의 책’
 b. *Марьи Ивановнина корова*
 ‘마리아 이바노브나의 암소’

PA 형성상의 이러한 통사적 제약은 기저명사의 한정성이라는 지시적 특성에 기인하는 듯하다. 부연설명하면, PA는 기술적(descriptive) 내용을 담은 명사구를 배제하고, 순수 지시적으로 사용되는 명사구를 선호한다는 것이다. (7a)의 *моя мама*는 지시적으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벗은 명사구로 사용되는 *мама*와 달리 강조 혹은 대조의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전자는 화용적으로 다른 사람의 엄마가 아닌 화자의 엄마라는 사실이 부가되어 있다. 수식어 *больная*가 포함되어 있는 (7b)의 명사구 역시 비-지시적 기술적 용법으로 사용되며, 따라서 지시적으로 비한정적일 수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8)의 명사구들은 순수 지시적으로 사용되는 것들이고, 그 지시체 또한 한정적이며, 따라서 PA로의 형성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다.

지시적 한정성 여부는 (9a)와 같은 명사구가 PA의 구성성분으로 출현할 수 있음을 설명한다.

- (9) a. *Ваня с Петей*
 ‘바냐와 페차’
 b. *Ванин с Петей велосипед*
 ‘바냐와 페차의 자전거’

전치사구 *с Петей*를 구성성분으로 가지는 명사구 *Ваня с Петей*는 지시적으로 한정적인 (복수의) 인물을 지시하기 때문에 (9b)에서처럼 PA로 사용가능

11) 이러한 통사적 성격 때문에 Babyonyshev(1997)는 러시아어 PA는 NP가 아니라 No에서 형성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2.2.3.에서 자세히 논의된다.

한 것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동일한 통사구조를 가지는 (10a)의 명사구는 PA로 사용될 수 없다.

- (10) a. девочка с персиками
 ‘복숭아를 가지고 있는 소녀’
 b. *девочкин с персиками портрет
 ‘복숭아를 가지고 있는 소녀의 사진’

(10a)에서 전치사구는 기술적 수식어로 사용되어 있다. 즉 с персиками라는 전치사구는 핵어-명사 девочка를 수식하여, 의미적으로 개체의 속성을 표현한다. 이와는 달리 개체의 정체성을 한정하는 (9a)의 с-전치사구는 순수하게 지시적으로 사용되어, 선행하는 핵어-명사 Ваня와 더불어 전체명사구에서 (PA-외적으로) 한정어로 기능하고 있다. 기술적 내용을 가지는 명사구는 PA-한정어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화용적 제약으로 설명되는 또 다른 예이다.

2.1.5. ‘PA+핵어’ 구조의 의미. PA라는 용어의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PA는 전통적으로 핵어-명사의 지칭체의 소유자(possessor)를 표현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예컨대, мамин이라는 PA의 사전적 정의는 ‘엄마에 속해 있는(принадлежащий к маме)’이며, мамина комната 등과 같은 명사구에서 PA는 방의 소유자가 엄마임을 표현하고 있다고 기술한다.

그러나 PA와 핵어와의 의미관계는 매우 다의적일 수 있다.

- (11) a. Машина статья
 ‘마샤의 논문’
 b. Машина фотография
 ‘마샤의 사진’
 c. Петино письмо
 ‘페차의 편지’

예컨대, (11a)에서 마샤와 논문과의 관계는 소유자-소유물의 관계라기보다는 마샤가 논문 집필의 행위주체라는 의미관계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11b)는 사진의 소유주로서의 마샤라는 의미해석을 받을 수도 있지만, 사진을 찍은 행위주체로서의 마샤로 해석될 수 있다. (11c)는 소유관계(페차가

가지고 있는 편지), 행위주-대상(폐차가 쓴 편지), 수령자-수령대상(폐차에게 온 편지) 등 다양한 의미해석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사건명사가 핵어로 출현했을 때, PA와 핵어-명사의 관계가 소유 관계일 수가 없음은 당연하다.

(12) мамино постоянное выражение недовольства очень тревожит папу.

‘엄마의 끊임없는 불만족의 표현은 아빠를 매우 불안하게 만든다.’

(12)에서 핵어-명사 выражение는 동사 выразить/выразиться에서 어휘적으로 파생된 사건을 표현하는 명사임에 틀림없다. 기저동사의 논항이 그대로 표면에 실현되어 있고, 사건동사를 수식하는 빈도부사어에 대응하는 형용사 постоянное가 출현하고 있다. ‘소유’의 개념을 아무리 느슨하게 이해한다고 해도, 이 명사구의 PA мамино가 소유관계를 표현한다고 보는 것은 무리이다. 보충어(complement)인 недовольства가 핵어 выражение가 지칭하는 사건의 객체(object)로 해석되듯이, PA의 기저명사 мама는 사건의 행위주로 해석된다.

이상의 논의는 PA와 핵어의 통사적 관계가 어떤 특징의 의미관계를 표현한다고 볼 수 없음을 명확히 한다. 사실, 본고는 PA와 핵어 사이의 의미관계는 해석(decoding, interpretation)의 문제이지, 표현(encoding, expression)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PA는 한정어의 통사기능을 수행하는 요소로, 핵어-명사가 지칭하는 지시체에 한정성(definiteness)을 부여한다고 보는 것이 본고의 입장이다.

2.2. 기존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본 절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PA의 특성들에 대한 기존 연구저작의 견해와 이론에 대해 검토한다. PA와 관련한 핵심적 쟁점 사항은, 서론에서도 지적하였듯이, PA의 품사적 성격과 통사적 기능 및 특성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한다.

2.2.1. Chvany(1977). Chvany(1977)는 PA를 통사적 파생 단어(syntactically derived words)이며, 따라서 어휘적으로 파생된 독립된 어휘소의 지위를 가지

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PA가 명사의 지위를 갖는다는 것을 함의하는데, Chvany는 *ин*은 한정성을 표현하는 일종의 ‘determiner case’라고 본다. 이러한 명사의 “소유 굴절(possessive inflection)”은 다른 격의 굴절과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소유굴절은, 다른 격 굴절과는 달리, 일치의 통사프로세스를 허용한다는 것이다. *про мам-ин-у школу*와 같은 예에서 PA는 *-ин-*이라는 “determiner case”로 굴절하고, 재차 *-у*의 일치를 보이는 반면, 일반적인 명사의 굴절은 *школ-у*에서 보듯 격 굴절만 보인다.

본고는 PA가 명사의 굴절현상의 하나라고 보는 Chvany의 주장에 동의하지만, *ин*이 determiner 격을 표현하고, 나아가 일치를 허용하는 예외적인 형태라는 진술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지시적 한정성이라는 특성은 PA의 기저명사가 한정어로 기능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ин*이라는 형태소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본고의 주장이다. 또한 Chvany의 주장은 결국 명사가 일치의 대상(target)이 된다는 주장을 함의하는데, 이것은 일치형태소의 일반적인 분포와 어긋난다. 일반적으로 명사는 일치의 통제자(controller)이며, 일치의 대상은 형용사이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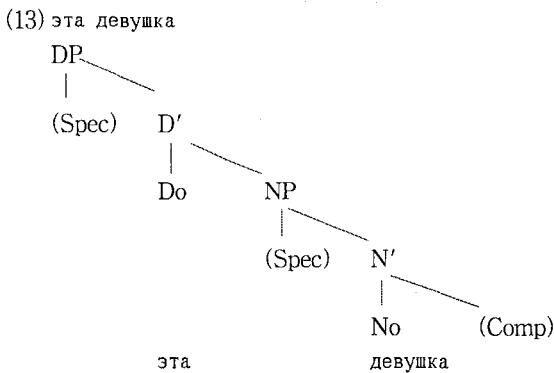
2.2.2. Corbett(1986), Корчепская-Тамм и Шмелев(1994). Corbett(1986)은 파생과 굴절의 이분법적 구별 자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 그는 이들의 단어형성 방식에 대한 전통적인 견해가 갖고 있듯이 그렇게 엄격하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슬라브어의 PA 관련 자료를 통해 전개하고 있다. 그는 PA가 명사적 성격과 형용사적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예증하고 있는데, PA의 명사적 성격으로 지시적 한정성과 대용사 통제가 가능성을 들고 있고, 형용사적 성격으로는 일치와 수식어의 통사적 기능을 들고 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Corbett은 PA는 전형적인 굴절도 아니고, 또한 전형적인 파생도 아닌 복합적 현상이며, 따라서 명사와 형용사 어느 한 범주에 소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Корчепская-Тамм и Шмелев(1994)는 PA는 명사라고 하면서도, 한편으로 형용사적인 특징을 함께 보인다는 다소 애매한 주장을 한다. 이들은 PA와 같이 빈도수가 높은 단어부류는 그렇지 않은 단어부류보다 더 많은 굴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보편적 경향성에 기대어, PA의 기저명사를 형성하는 명사들은 빈도수가 높은 단어들이고, 따라서 다른 명사류보다 더 많은 굴절가능성(즉, 소위 새로운 호격형--*Саша*의 호격형 *Саш* 참고--과 PA형)을 가지고 있는 것

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주장한다. 한편, PA의 품사적 성격에 대해서는, 마치 형동사(participles)가 동사와 형용사의 특성을 아울러 가지듯이, PA도 명사이지만 형용사의 특성을 아울러 가진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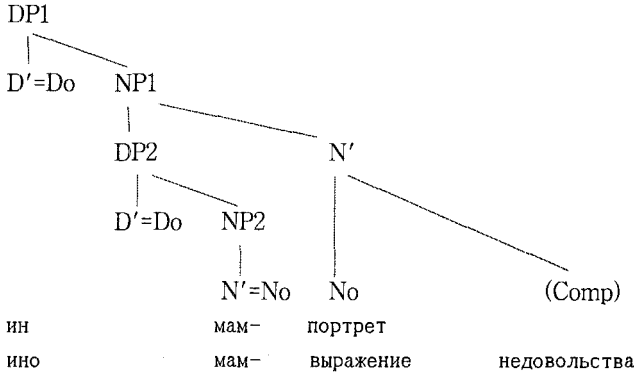
3장에서 논의되겠지만, 본고는 일치, 격 등의 통사적 현상이 보이는 요소사이의 관계적(relational) 성격에 주목하고, 하나의 품사에 속하는 어휘소는 통사기능상의 변이(variation)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고려한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여, 본고는 일치 및 격 등의 통사관계가 형태적으로 실현되는 성분을 통사범주(즉, 품사)로 규정하지 않고, 통사기능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입각해, 본고는 PA가 명사의 굴절형이면서도 일치를 보이는 이유는 PA가 한정어라는 통사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2.2.3. Babyonyshev(1997). Babyonyshev(1997)의 PA 기술은 명사구를 한정어의 보어(complement)로 설정하는 DP-가정에 근거하고 있다. 즉, 한정사(determiner)는 NP를 보어로 삼고, NP자체는 구조적으로 N'-층위에서 Spec(ifier) 위치를, No-층위에서 Comp(lement) 위치를 가진다.



이러한 명사구 구조 모델에 입각해, Babyonyshev는 PA의 기저명사는 NP1의 Spec 위치에서 생성되고, PA의 ин은 DP1의 Do로 생성된다고 분석한다.

- (14) а. мамин портрет
 б. мамино выражение недовольства



이러한 구조 부여를 동기화하는 것은, Babyonyshev에 의하면, PA가 보이는 통사 및 의미역할상의 특성이다. 우선, 기저명사가 NP1의 Spec위치에서 생성되는 이유는 NP1의 핵어(즉, No)가 사건명사일 경우(14b), 이 기저명사가 사건의 행위주의 의미역할(theta-role)을 담당하므로, 이러한 의미역할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핵어-(사건)명사의 최대투사구인 NP1의 Spec위치에서 생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Spec, NP1> 위치에서 생성된 기저명사는 (bare) NP의 위상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No의 어휘핵으로 생성되는데, 그 이유는 내적 통사적 구성을 가지는 구는 PA로의 형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예 7a, b 참고). 표면의 PA의 통사적 파생 절차는 우선 NP1내에서 No(=мам-)가 Do로 상승(head-to-head raising)되고, 이렇게 상승된 Do-No는 재차, <Spec, DP1>의 위치로 상승되었다가, DP1의 핵어인 Do와 통합(incorporation)된다.

그러나 Babyonyshev(1997)의 분석은 개념적, 경험적 측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PA가 가지는 지시적 한정성은 근본적으로 기저명사에 그 근원이 존재한다. 즉, 지시적 한정성 및 친근성이라는 담화-화용적 특성을 가지는 것은 기저명사이다. 그러나 Babyonyshev의 분석은 DP1의 Do(=ин)가 한정사로 기능하며, 따라서 PA의 지시적 한정성은 이 한정사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한다.¹²⁾ 만약 ин이 지시적 한정성을 가진다면, 왜 다른 제2곡용명사, 즉 особа, женщина, мужчина 등의 명사가 PA로 사용되지 않는지에 대한 설명이 어려워진다.

12) 실제로 Rappaport(2000)는 PA의 ин 접사는 [singular, animate, definite, genitive, F]의 자질집합이 굴절형태론의 규칙에 의해 실현된 것으로 가정한다.

둘째, Babyonyshev는 내적 구조를 가지는 통사적 구성, 즉 구는 PA로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어휘핵 (No)으로 기저에서 생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기저 생성된 No는 자신의 최대투사구(NP2) 내에서 격을 할당받지 못하기 때문에 상승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9b)에서 보듯이, 구(phrase)도 PA의 대상이 된다(Ваня с Петей > Ваня с Петей велосипед). Babyonyshev 역시 이러한 예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NP2의 No인 Ваня는 격을 할당 받지 못해 상승되지만, 그것의 부가어(adjunct)인 с Петей의 Петя는 격을 받을 수 있는 통사환경에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219쪽, 각주 20). 그러나 (10)의 예와 같은 경우에서 보듯, (9a)와 동일한 통사적 구성을 가지는 девочка с персиками의 구는 PA를 형성하지 못한다는 사실(*девочкин с персиками портрет)을 Babyonyshev의 분석이 설명해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셋째, NP2의 No로 기저 생성된 어휘핵(мама)이 인상되면서 생격을 할당받는다 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할당된 생격이 왜 항상 zero-형태로 실현되는지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표면에서 항상 zero로 실현되는 격을 설정할 논리적 근거가 있는지 의문이다.

본고는 PA를 명사로 간주하는 Babyonyshev의 의견에 동의하지만, 이 명사가 기저에서 생성되는 장소가 NP2의 Spec 위치라는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전술한 바와 같이, PA는 명사가 한정어의 통사적 위치에서 출현하면서, 한정어라는 명사에게는 비전형적인 통사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기능변환소(FA)”인 ин이 명사구의 핵어에 접사화된 형식이라고 본다.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본고의 주장에 대해 자세히 논의하기로 한다.

3. PA: 한정어로서 기능하는 명사

3.1. 기능변환소로서의 통사접사 ин

필자는 통사범주(품사)와 통사기능 사이에는 전형적 일대일 대응관계가 성립된다고 가정한다. 부연하면, 통사범주로서의 명사는 논항어, 동사는 서술어, 형용사는 수식어로 기능하는 것이 전형적이라는 것이다.

면, 명사 *мама*는 자신에게 전형적인 논항어(즉, 주어, 목적어 등의 보어)의 통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않음이 명백하다. 즉, 명사 *мама*는 자신에게 ‘유표적인’ 통사기능인 한정어로 사용되고 있다. 필자는 명사 *мама*의 어간에 통합된 접사 *ин*(위에서 “?”로 주석한 부분)은 이렇게 명사가 한정어로 사용되었을 경우에 통합되는 FA라고 주장한다. 즉, 명사가 자신에게 유표적인 한정어 기능을 수행할 때, 그 유표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즉 ‘기능을 변환시켜 주는 요소’라는 것이다.

한정어로 기능 변환된 명사 *мам-ин*이 한정어-피한정어(핵어) 사이에서 발견되는 일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지시대명사가 한정어로 출현한 다음의 예에서 한정어 *этот*는 성, 수, 격에서 핵어-명사인 *портрет*와 일치를 보인다.

(17) *этот портрет*

즉 일치의 대상인 *этот*는 일치의 통제자인 *портрет*가 가진 남성, 단수, 주격의 통사자질을 그대로 이어 받는다. (14a)에서 한정어로 사용된 *мам-ин*이 핵어-명사인 *портрет*의 일치자질을 보이는 것 역시 같은 연유에서이다.

명사가 한정어로 사용될 때 사용되는 언어적 수단이 [FA:ин]이며, 한정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명사가 일치의 대상이 된다는 본고의 주장은 일치와 격 등의 통사관계를 표현하는 문법범주의 분포를 품사로 규정하는 전통적인 견해와 대립된다. 전통적으로 일치 형태소는 (러시아어의 경우) 형용사나 동사에 분포하는 것으로 이해되었고, 격 형태소는 명사에 분포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따라서 명사가 일치 형태소의 분포 대상이 된다는 본고의 주장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 진술이고, 사실상 대부분의 학자들이 PA의 품사론에 명확한 대답을 주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들 통사관계 형태소의 분포를 품사로 규정하는 것은 각각의 품사가 자신의 전형적인 통사기능을 수행할 때에만 그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아야 한다. 본고에서 논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떤 특정 품사의 단어는 통사 기능적으로 변이되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일치/격 형태소의 분포를 품사로 규정하는 것은 일반성을 담보해 주지 못한다. 예컨대, 러시아어에서 형용사라는 품사는 수식어의 전형적 통사기능을 보이며, 이러한 경우 성, 수, 격에 따른 일치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형용사가 서술어라는 비전형적, 주변적 통사

기능을 보일 때의 일치는 주어와의 성과 수에 따른 일치이다. 러시아어에서 동사(과거형)가 전형적 서술어로 사용되었을 때의 일치는 주어와의 성과 수에 따른 일치라는 사실에 부합된다. 그러나 동사가 수식어로 사용되었을 때(즉, 동사의 ‘분사형’, 예 16 참고)에는 (형용사가 수식어로 사용되었을 때처럼) 성, 수, 격에서 일치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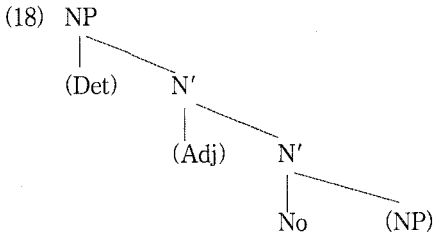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논의는 일치, 격 등의 통사관계 형태소의 분포는 품사가 아니라 통사기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함을 드러내 보인다. 즉, 명사구 성분 내에서의 일치는 형용사가 아니라 수식어 (또는 한정어)라는 문장성분에 분포하며, 문장성분 내에서의 일치는 동사가 아니라 서술어라는 성분에 분포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격 역시 논항어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성을 가진다. 이러한 논증에 의거해, 필자는 мам-ин-∅이라는 “PA(소유형용사)”는 명사의 FA-굴절형이며, 일치형태소 -∅는 한정어에 분포하는 것으로 결론 내린다.

한편, PA를 핵어-명사의 수식어(modifier)로 보는 견해도 있다(Partee & Borschev 2003). 그러나 이 견해를 수용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수식어가 내포적으로는 핵어-명사의 의미내용에 속성을 더하는 것이고, 외연적으로는 핵어-명사의 잠재적 지시체의 외연을 축소하는 것이라면, 한정어는 내포적인 의미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보다는 오히려 잠재적 지시체의 외연을 한정하는(즉, 정체성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PA мамин이 수식어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것은 (14a)와 같은 예는 чей это портрет?에 대한 답변으로 사용될 수 있지만, какой это портрет?라는 질문의 답변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사실(Chvany 1977, 51)로도 뒷받침된다.¹⁵⁾

3.2. PA 구성의 통사적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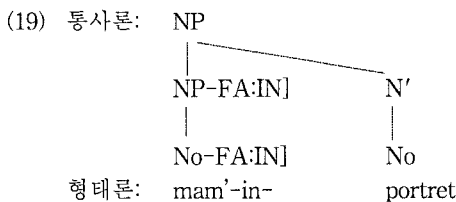
본고는 러시아어 명사구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이분적 계층구조화(binary hierarchy)되어 있다고 가정한다.

15) 전술한 바와 같이, PA 형성가능 명사는 지시성이 높은 명사이어야 된다는 제약은 사실은 그 명사가 한정어로 사용되기 위한 필요조건이다. 한정어라는 통사적 기능은 지시체의 한정성을 표현하는 기능이고, 따라서 한정어로 출현하는 명사는 지시성이 높은 명사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가 함의하고 있는 명사구에 관한 일반화는 첫째, 최대 명사구는 한정사(한정어)와 N'(피한정어)의 직접구성성분으로 이분되고, 둘째, N'는 형용사(수식어)와 N'(피수식어)로 재귀적으로 이분되며, 셋째, N'(피수식어)는 핵어(No)와 보어(NP)로 이분된다. 이 중 Det, Adj, 보어-NP 자리는 채워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핵어(No) 자리는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¹⁶⁾

본고의 논의의 대상인 PA-구성(PA를 포함하는 명사구)은 Det 위치에 전형적인 한정사인 *этот, тот* 등이 나타나지 않고, NP가 출현한 구성이다. 이렇게 명사구가 자신에 유평적인 한정어의 기능을 담당하기 때문에, 러시아어 통사문법은 한정어-NP에 [FA:IN]¹⁷⁾을 할당한다. 한정어-NP에 할당된 [FA:IN]는 핵어-No로 “하강”되고, 이렇게 하강된 통사자질은 굴절형태론에서 제2곡용명사일 경우에는 /in/, 제1곡용명사일 경우에는 /ov/의 음운연쇄체로 핵어-명사의 어간에 접사화된다. 지금까지의 형태-통사적 프로세스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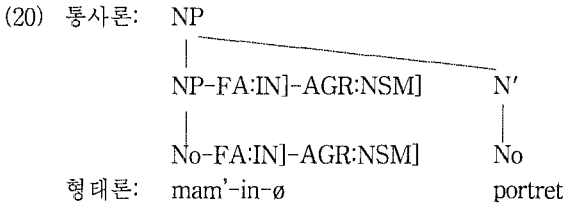


그런데, 러시아어 문법에서 한정어는 피한정어의 핵어와 일치할 보이기 때문에, 핵어의 일치자질은 다시 한정어-NP에 전이되고, 이 일치자질은 재차

16) Det, Adj, 보어가 나타나지 않은 NP는 벗은 NP이고(즉, No=NP), 만약 No 위치가 채워지지 않았다면, 그것은 생략(ellipsis)이다.

17) [A:a]에서 “A”는 범주명, “a”는 자질을 지칭한다. 예컨대, [GEN:Fem]은 성범주의 여성을 의미한다. [FA:IN]에서 “IN”은 한정어 위치에 명사구가 등장할 때의 기능변환소 자질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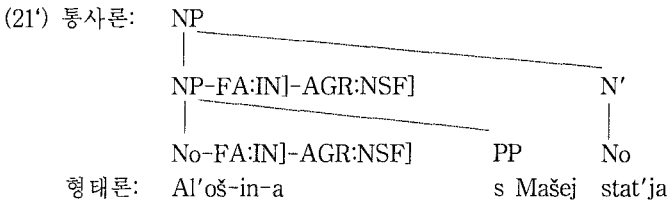
“하강”한다. 하강된 일치자질은 굴절형태론의 실현규칙에 의해 접사화된다.



이상의 논의는 형태론적 구조에 있어서의 선형성은 통사론적 구조에 있어서의 계층성을 지표한다(diagrammatize)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즉, 형태론적으로 어근에 근접한 요소는 통사적 위계상 낮은 국부성(lower locality)을 보인다. 선행하는 FA 형태 /in/은 상위 명사구 내에서 명사구 자신의 기능과 관련된 현상인 반면, 후행하는 AGR 형태 /∅/는 상위 명사구내에서 한정어-명사구 자신과 자매성분인 핵어-명사와의 관계를 반영한 현상이다.

(21a)의 명사구가 한정어로 기능할 때(=21b)의 프로세스를 살펴보자.

- (21) a. Алеша с Машей
b. Алешина с Машей стать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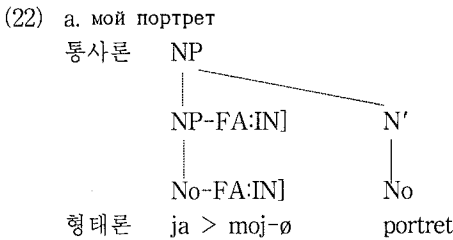


한정어 위치에 Det 대신에 NP가 등장했기 때문에 [FA:IN]이 할당되고, 할당된 이 FA 자질은 그대로 No까지 하강되어 형태론에서 /in/으로 실현된다.¹⁸⁾ 이 논의는 러시아어의 명사-한정어에 접사화되는 FA 자질은 핵어자질

18) '이름명사구'가 한정어로 사용된 경우(예: тети Катина книга, Марьи Ивановнина корова 등)에 관해서는 본고에서 논의하지 않는다. 이 구문에 등장하는 생격형(тети, Марьи)이 과연 통사적으로 형성된 격형태인지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Babyonyshev(1997, 각주 2)에 의하면, теть Катина книга (제로의 격어미 또는 어간형 그 자체로 출현한 경우)의 형식이나 деда Толина комната '할아버지 톨라의 방'(어휘소 그 자체로 혹은 주격형으로 출현한 경우) 모두 가능하다고 보고한다. 고지소르비아어의 명사구 moj bratr 등

(head feature)임을 알 수 있다.¹⁹⁾

한편, 본고는 소위 “소유대명사” 역시 인칭대명사가 한정어로 기능변환된 형태로 간주한다. 고유명사 등이 한정어로 기능변환되면서 FA라는 통사자질을 획득하는 것처럼, 품사가 명사인 인칭대명사(я, ты, мы, вы, он, она, они)의 전형적 기능은 물론 논항어이지만, 유표적으로 한정어로 기능하게 되면, 이들 역시 FA자질을 획득하게 되어 “소유대명사”의 형태(мой, твой, наш, ваш, его, ее, их)로 출현한다. 다만, [FA:IN]를 획득한 인칭대명사는 어휘적 보충법으로 실현된다는 것이 일반 명사가 한정어로 사용되는 경우와 다른 점이다.²⁰⁾



4. 결론

본고의 제1차적 목적은 러시아어 “물주형용사”를 기능변환소론에 입각해 분석하는 것이었다. 필자는 러시아어의 “물주형용사(PA)”가 품사적으로 명사이며, 통사기능적으로 한정어임을 주장하고, 접사 ин은 명사의 한정어로서의 기능변환을 나타내는 일종의 굴절(통사) 접사임을 논증하였다.

재차 강조하지만, 본고에서 제안된 기능변환소론은 품사는 기능적으로 변이

은 PA로 기능하는데, 이럴 경우 moj는 생격으로 변화한다(예: moj-eho bratrowe žona ‘내 형의 아내’, Choi 2004 참고).

19) 러시아어의 ин에 대응하는 영어의 형태 ‘-s’는 핵어 자질이 아니라 edge feature 이다. 예: what was the girl with the snake skin’s name?

20) “소유대명사”를 인칭대명사가 한정사로 어휘적 품사 전성된 형태로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이라면, мой등은 한정사(Det)의 품사로 자신의 전형적인 통사기능인 한정어의 위치에 출현한 것이며, 따라서 기능변환소라는 별도의 통사적 자질을 가질 필요가 없다.

한다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명사는 전형적 통사기능이 논항어이지만, 유표적으로 한정어의 변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본고는 이처럼 유표적 통사기능을 표지하는 것이 FA라고 주장한다. 무표적으로 논항어로 쓰이는 мам-이 유표적으로 한정어로 변이되어 기능할 때, 여기에 대응되어 FA라는 형식으로 유표화(мам-ин-)되는 것은 무표는 무표의 형식에, 유표는 유표의 형식에 대응된다는 ‘지표적 도상성(diagrammatic iconicity)’이라는 현상을 예시한다(Jakobson 1966/1971, Croft 1990/2003 등).

그러나 모든 명사가 한정어의 유표적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2절에서 논의하였듯이, 한정어란 근본적으로 핵어-명사가 지시하는 지시체의 정체성을 부여하는, 즉, 지시적 한정성(referential definiteness)을 담보해 주는 성분이기 때문에, 한정어로 기능하는 명사는 높은 지시성이 내포되어 있어야 한다. 사실, 한정어 역할을 하는 명사는 (잠재적으로) 한정적 명사구이어야 한다.

“PA”의 기저명사가 한정적 명사구라는 사실은 기저명사(мама)와 /in/-접사화된 형태(мамин-ø, -а, -о, -ы)사이의 관계가 굴절의 관계에 있음을 방증한다(특히, 예 (21) 참고). 통사단위로서의 구에 관여하는 형태변화는 굴절의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본고는 PA에 보이는 일치소는 명사가 한정어의 성분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았다. 이러한 본고의 견해는 PA가 일치소를 보인다고 하여, 형용사로 품사전성을 하였다고 보는 전통적인 견해와 근본적으로 차별화된다. 또 다른 전통적인 견해는 일치소의 분포를 품사(즉, 형용사)로 규정하는데, 이와 달리, 본고에서는 기능(즉, 한정어 및 수식어)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성을 갖는다고 주장하였다.

참고문헌

- 이정민(1992) 「(비)한정성/(불)특정성 대 화제(Topic)/초점-개체 층위/단계 층위 술어와도 관련하여-」, 『국어학』 22, 국어학회, 397-424쪽.
- 최성호(2007) 「복합기능구문: 통사범주의 기능적 변이와 유표화 원리」, 『언어학』 47, 한국언어학회, 59-85쪽.
- Копческая-Тамм, Мария и Шмелев, Алексей(1994) "Алеша с Машей (о некоторых свойствах русских “притяжательных прилагательных”),” *Scando-Slavica* 40, сс. 209-228.
- Шведова, Н. Ю и др.(1970) *Грамматика современного русского литературного языка*, Москва: Наука.
- Babyonyshev, Maria(1997) "The Possessive Construction in Russian: A Crosslinguistic Perspective," *Journal of Slavic Linguistics* 5/2, pp. 193-230.
- Choi, Sung-ho(2004) "'Possessive Adjectives' in Upper Sorbian: Their Morphology and Syntax," *Eoneohag* 39, The Linguistic Society of Korea, pp. 3-25.
- Chvany, Catherine(1977) "Syntactically derived words in a lexicalist theory (Toward a restudy of Russian morphology)," *Folia Slavica* 1/1, pp. 42-58.
- Corbett, Greville(1986) "The Morphology/Syntax Interface: Evidence from Possessive Adjectives in Slavonic," *Language* 63/2, pp. 299-345.
- Croft, William(1990/2003) *Typology and Universals*, 2nd 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Jakobson, Roman(1966/1971) "Quest for the essence of language," *Selected Writings II*, The Hague, Mouton de Gruyter.
- Partee, Barbara & Borschev, Vladimir(2003) "Genitives, relational nouns, and argument-modifier ambiguity," C. Fabricius-Hansen, E. Lang and C. Maienborn(eds.), *Modifying Adjuncts, Series: Interface Explorations*, Mouton-de Gruyter, pp. 67-112.
- Rappaport, Gilbert(2000) "The Slavic Noun Phrase in Comparative Perspective," George Fowler(ed.), *Comparative Slavic Morphosyntax(a*

pdf. file from <http://www.utexas.edu/courses/slavling/grapp/pubs.htm>).

Townsend, Charles E.(1968/1975) *Russian word-formation*, Slavica.

Trubetzkoy, N. S.(1939) "Le rapport entre le déterminé, le déterminant et le défini," *Mélanges de linguistique offerts à Charles Bally*, Geneva, pp. 75-82.

Abstract

**"Possessive Adjectives" in Russian:
A case study of Function Adapter theory**

Choi, Sung-ho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Part-of-Speech membership and the syntactic function of what has been called "possessive adjectives(PA)" in Russian with respect to the theory of Function Adapter(=FA). After discussing several characteristic features of PA on various levels and critically reviewing the previous of these features, the study introduces the concept of FA. The inflectional status of FA as a new inflectional category is motivated by the fact that while there is a prototypical (unmarked) relation between parts-of-speech and syntactic functions, the relation may be destroyed, in which case FA remedies the deviated relation. It is argued in this paper that PA is a noun that is markedly used like a determiner and that the suffix /in/ is a FA, which adapts the noun to the syntactic function of a determiner. This understanding explains why the base nominal underlying PA must be referentially definite: the determiner assigns definiteness (definite identity) to the entity referred to by the noun.

논문심사일정

| | |
|--------|---------------------------|
| 논문투고일: | 2007. 3. 10 |
| 논문심사일: | 2007. 3. 20 ~ 2007. 4. 15 |
| 심사완료일: | 2007. 4. 20 |

최 성 호 : 러시아어의 '물주형용사' 구문: 기능변환소론의 사례 연구
주제어 물주형용사, 품사, 통사기능, 기능변환소, 굴절

Choi, Sung-ho : "Possessive Adjectives" in Russian: A Case Study of
Function Adapter Theory

Key Words possessive adjective, parts-of-speech, syntactic
function adapter, inflection